



어린이의 사고 예방

김 소 인

(고려의대 간호학과)

기개 문명이 발달되고 인구가 팽창 됨에 따라 사회가 복잡해져 이에 따른 각종 사고의 수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에는 의학이 발달하여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 개인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모든 분야에서 안전교육이 중요시 고려 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각종 우발사고(Accidents)로 기인되는 사망자의 수나 불구자의 수가 연소한 연령층에서 증가됨을 볼 때 사고의 예방은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전한 국가는 건전한 소아의 장래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며 이는 육체적·정신적·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소아기의 양육 및 적절한 보호가 바탕을 이룬다고 한다.

더욱이 U.N에서는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정하고 장차 한 국가를 짊어질 아동들의 보호 육성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밝힌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맞추어 각 기관에서 아동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계획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장차 한 나라의 초석이 될 아동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다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것은 모두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사고란 그 범위가 광대하여 지진, 화산폭파, 홍수 및 전쟁에 이르는 큰 규모의 사고로부터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적은 규모의 사고가 있으며, WHO에서는 상처를 입히는 돌연한 사건이 바로 사고(Accidents)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있다.

특히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발사고는 전세계를 통해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저 연령층에 있어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문헌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동들에게 있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발달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요약 해 볼 수 있다.

첫째 출생후 1년 즉 영아기에는 자기자신을 어느정도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스스로 자신을 이동 하거나 놀릴 수 있게 되며 자아가 발달되어 현실과 비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나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현실에 적응할 수 없는 시기이다.

따라서 배고픔이나 부적당한 포유법 등에 대해 분노정서를 표시하게 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면 무엇이든 지 가져와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물(Foreign Body)이나 어떤 음식물로 인한 질식, 낙상, 화상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들

책로 1세에서 4세 사이 즉 유아기에는 유아가 어른의 도움없이 자기의 신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되고 또 자기의 요구를 주위사람들에게 알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자율성이 발달하게 된다. 또 부모와의 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즐기며 그 행동을 부모로부터 인정 받을때 즐거운 경험을 맛보게 된다. 따라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 또는 문화적 조건이 옳다고 인정되는 것을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다른 어린이와 놀때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장난감을 갖고 함께 어울려 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주로 자전거 사고, 화상, 익사, 낙상, 중독 등의 사고가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는 학령전기 아동으로 이 시기에는 영유아기와는 달리 아동이 옥외에서 활동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임의로 자유로히 활동할 수 있게되나 위험물에 대한 이해가 미숙하여 옥외사고의 발생률이 높다. 따라서 사고의 대부분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어른이 하는 일 즉 성냥불을 켜다든지, 뜨거운 물주전자를 들어본다든지, 냉장고를 여닫는다든지, 창틀에서 논다든지, 또는 정원이나 수영장 근처에서 논다든지, 전기조케트를 만진다든지 그 밖의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 이밖에도 약물로 인한 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령기 아동에 있어서는 아동의 활동이 차차 광범위해지고 학교생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무엇이든지 알고 배우고 익히려는 근면감이 발달하게 된다. 또 동무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고 gang의 일원이 되어 행세하는데 만족을 느끼며 친구들과의 단체활동에 몰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순간적 충동에 의해 행동하게 되고 실수가 많아 위험스러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주로 등교길에 차도를 건너다든지, 자전거를 타는 경우 등으로 차사고가 가장 많고 그 밖에 익사등이 주된 사고로 나타나 있다. 이상 4단계로 나누어 본 아동의 사고를 종합해 볼때 자전거·자동차 사고, 낙상, 화상, 익사, 중독 등으로 묶어 설명할 수 있겠다.

사고의 대다수는 집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죽음을 초래하고 회복되더라도 영구적인 불구와 상처를 남기는 것이 흔한 예이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예방은 모든 아동들의 건강관리 및 안전보호를 위해 중요시 다루어져야 할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우발사고(Accidents)는 항상, 아동, 위험물질 및 환경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또 사고는 문화적 배경, 경제적 상태, 환경적 요인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대부분 아동의 행동은 모방이 시초이며 모든 행동을 자신이 하려하므로 독립하려는 심리적 욕구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육체의 훈련이 이에 따르지 못했을 경우 심리적 욕구와 육체적 발달과의 균형이 파괴되는 까닭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고란 어떤 연령층에 어떤 남·녀를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어린이에 있어서 사고란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연에 방지 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울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주의깊은 관찰(Careful Observation)이 要求되며 이는 영아기 때부터 습관화 되어와야 한다. 아동들은 자신이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 행동을 자유롭게 행함으로써 위험한 상황 속으로 빠져 들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나 그 밖의 아동을 돌보아 주는 사람들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안전한 것인지 또는 불안정한 것인지를 가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어른의 감독하에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자기 스스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자칫하면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두에게 사고에 대한 예방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 1년까지 영아는 부모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어 성장하지만 학령기가 되면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받게 되어 부모로부터 점점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가도 사고를 스스로 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은 부모에 의해 어렸을 때

부터 실시되어 져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때 아동의 사고란 성장 발달 단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대부분 어른들(부모)의 부주의나 소홀함을 틈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사고의 대부분이 집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사고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주입시켜 아동 스스로가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들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 각 발달 단계마다의 특징적 행위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대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하영수 ; 산소아과 간호학. 수문사, 1972.
2. Marlow: Pediatric Nursing, Mosby, 1978.
3. Slobody & Wasserman: Survey of Clinical Pediatrics, 5th Edition, McGraw-Hill, pp. 57~58, 1968.
4. 권이혁 : 공중보건학, 동명사, pp. 334—345, 1966.
5. 강신호 : 공중보건잡지, Vol.7, No.1, p.49, 1970.
6. 백혜자 :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소아 우발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중앙의학, Vol.28, No.6 pp. 681~692, 1975.

<근간안내>

어린이 간호의 원리와 실제

한정석 · 심치정 · 오가실 편저

대한간호협회 출판부